

초기 그리스 서정시에 나타난 인간의 한계 의식과 현실 감각

조대호
(연세대학교)

1. 초기 그리스 서정시의 두 형태: 엘레게이아와 이암보스

그리스 서정시가 독립된 문학 장르로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기원전 7세기의 일이다. 이 무렵 생겨난 그리스 최초의 서정시들은 크게 두 부류, 즉 “엘레게이아”(elegia)와 “이암보스”(iambos/ iamboi)로 나뉜다. 엘레게이아는 “엘레게이온”¹⁾이라는 운율을 따른 시들을 가리키는데, 그런 시들은 죽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생사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elegy” 또는 “Elegie”, 즉 “비가”(悲歌)와 다르다.²⁾ 한편, “이암보스”로 분류되는 시들은 엘레게이아처럼 정해진 하나의 운율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 주된 운율이 “이암보스”³⁾를 기본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디튀람보스(dithyrambos), 트리암보스(thriambos), 이튀암보스(ithymbos)가 그렇듯이, 이암보스 운율은 본래 데메테르나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제의 때 입에 오르내린 거친 입담이나 음담패설의 대화에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⁴⁾ 경쾌하고도

【Keywords】 frühgriechischer Lyrik, Elegeia, Iambos, *conditio humana*, Grenzsituation, Realitätssinn

- 1) 엘레게이온(elegeion, elegiac couplet)은 daktylos(— ∪ ∪)가 여섯 번 되풀이 되는 육절 운율(hexameter)과 이것의 절반(hēmiepes — ∪ ∪ — ∪ ∪ —)을 두 번 반복한 오절운율(pentameter)이 한 짝을 이룬 distichon(2행 시구)으로 이루어진 운율이다.
- 2) Schadewaldt 1989: 99를 참고하라.
- 3) 이암보스 운율(iambic metron)의 기본 형태는 두 번 반복되는 iambos(∪ —)로 이루어지며, 그 기본 형태가 다시 세 번 되풀이되어 삼절운율(iambic trimeter)을 형성한다.
- 4) 이런 음탕한 말들이 제의에 참여했던 선남선녀의 야합에 기여했으리라는 것은 쉽

공격적인 말투가 두드러진 특징이다. “lyricus”의 본래 말뜻에 따라 서정시를 “뒤편을 반주 악기로 삼는 시”로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런 정의가 그리스의 모든 서정시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엘레게이아나 이암보스는 “모든 운율 가운데 가장 안정성 있고 무게 있는 운율”⁵⁾을 취한 서사시와 비교해 보면 훨씬 율동적이지만, 그리스 서정시의 또 다른 장르인 “멜로스”(melos) 만큼 음악적이지는 않다. 반주 악기로도 엘레게이아의 경우에는 오보에와 닮은 아울로스가, 이암보스의 경우에는 클레psiambos라는 현악기가 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adewaldt 1989: 9).

고전 연구자들은 그리스 서정시 최초의 두 형태인 엘레게이아와 이암보스에 대해 말하면서 “개성의 자각”이나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즐겨 쓴다.⁶⁾ 서정시인은, 지나간 시대를 회고하면서 그 시대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서사시인과 달리 현재 삶의 다사다난(多事多難)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개인적 주체로서 등장한다는 말이다. 서정시의 의미에 대한 이런 정신사적 해석의 정당성 유무에 대해서는 물론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⁷⁾ 지금까지 전승된 엘레게이아와 이암보스 시들을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비교해 보면 차이는 뚜렷하다. 기원전 7세기 무렵의 서정시인들은 갖가지 인간사에 대한 자신들의 자의식과 주관적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는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인 그리스 세계의 전쟁과 정치, 그 시대의 관습과 도덕, 인간 삶의 무상함, 사랑과 죽음, 죽은 자에 대한 탄식 등이 초기 그리스 서정시의 소재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엘레게이아와 이암보스의 시들은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런 갖가지 인생사와 맞물려 시인들 개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부침(浮沈)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전승된 그런 부류의 서정시 단편들에 담긴 주관적 감정을 단순히

게 짐작할 수 있다. Aristoteles, Poetica, 1448b 30을 참고하라. Iambos와 Elegeia에 대한 더욱 자세한 분석으로는 West 1974: 22ff.를 보라.

5) Aristoteles, Poetica 1459b 34f.

6) Snell 1955: 46 (“das Erwachen der Persönlichkeit”); Bowra 1966: 66ff. (“The emergence of personality”); Schadewaldt 1989: 13 (“ein Erwachen des Ich-Bewußtseins”).

7) 초기 그리스 서정시 해석사에 대한 간략한 언급으로는 Hose 1999: 43f.를 참고하라.

사적인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는 분명 지나친 판단일 것이다. 기원전 7세기의 시편들은 서정시인들 개개인의 주관적 감정의 토로이지만, 그 주관적 발언에는 어떤 뚜렷한 형태의 공통된 정서가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 공통된 정서는 일찍이 호메로스의 서사시 곳곳에서 표현되었던 것으로, 이를 가리켜 우리는 인간의 “한계 의식”과 “현실 감각”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어찌 보면 그리스의 초기 서정시들은 인생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갖는 한계의식과 그러한 한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으려는 시도의 시적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전승된 몇 편의 엘레게이아와 이암보스를 소개하고 이를 호메로스 서사시의 관련 구절들과 비교하면서 그 안에 드러난 기원전 7세기 그리스인의 정서를 그려내 보려고 한다.

2. 전쟁과 죽음

그리스 시문학의 가장 오래된 소재 가운데 하나는 전쟁이다. 그런 뜻에서 영웅들의 행적을 노래하는 영웅 서사시는 동시에 전쟁 서사시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물론 트로이 전쟁 영웅들의 행적을 다룬 『일리아스』이지만, 꼭 『일리아스』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영웅시 역시 전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영웅들은 고난과 불행 가운데서 자신의 영웅다움을 발휘하며, 영웅의 진면목은 죽음에 맞선 절박한 상황, 특히 전쟁 상황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전쟁은 인간 세계에 군림하는 신적인 힘들이 자신들을 드러내는 자리이자, 이 운명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고귀한 자와 미천한 자가 갈라지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영웅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힘에 맞서 의무를 다함으로써 영웅의 명예를 얻는다. 키토(Kitto 1984: 91)가 적절히 표현했듯이, “생명의 위협에 처했을 때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인생의 유한성, 또는 인생의 모순의 특징이기도 하다. 영웅은 아마도 죽음에 직면해서만이 용기를 입증하며 자기의 영광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서사시뿐만 아니라 초기 서정시들도 전쟁과, 인간의 전쟁 체험을

주제로 다룬다. 하지만 서사시의 전쟁이 회상 속에 재현되는 지나간 영웅시대의 전쟁이라면, 서정시가 다루는 전쟁은 시인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의 전쟁이다. 서사시 시인이 전쟁을 긴 시간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관찰자로서 보고한다면, 서정시의 시인은 전쟁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로서 발언한다. 이제 전쟁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서술의 대상이 아니라 시인 자신의 개인적 체험의 현실로 다가오며, 바로 이런 점에서 서사시에 없던 시인 자신의 주관성이 들어설 자리가 마련된다. 시인은 이제 전쟁의 한 복판에서 있는 인간으로서 전쟁 속의 인간 상황을 노래한다.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서정시로 손꼽히는 칼리노스(Kallinos)와 티르타이오스(Tyrtaios)의 시편들은 시인의 전쟁 체험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길지만 칼리노스의 단편을 읽어보자(1 West)⁸⁾:

언제까지 누워 있는가? 언제 싸울 마음을 가지려나?
 젊은이들아. 이웃나라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는가?
 이리도 마냥 늘어져 있으니, 너희는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하나, 전쟁이 온 땅을 뒤덮었다.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창을 던지라.
 그런즉 고향 땅과 아이들과 혼인한 아내를 위해
 적들과 맞서 싸움은 사내의 명예요
 영광이라. 운명의 신들이 정한 때가 오면 죽음은
 다가오리니, 앞으로 전진하라,
 창을 높이 세우고, 싸움이 시작되면 방패 아래
 용맹한 가슴을 감추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니, 신들의
 핏줄에서 난 자도 죽음은 피할 수 없도다.
 번번이 싸움과 창들의 굉음을 피한다 해도,
 죽음의 운명은 집 안에서 다가온다.

8) 이 글에서는 M.L. West (ed.) 1971, *Iambi et Elegi Graeci. Ante Alexandrum Cantati*, Vol I, II, Oxford를 기본 텍스트로 삼았다.

그는 겨레의 사랑도 전혀 언지 못하고 기억에서 사라지나,
고초를 겪은 자를 위해선 작고 큰 탄식이 있도다.
온 동포에겐 용감하게 죽은 자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노라. 그는 신에 버금가는 삶을 살았도다.
마치 성벽을 대하듯 사람들을 그를 눈에 둘 것이니,
수많은 이의 몫을 홀로 감당했기 때문이라.

이 시는 소아시아 전역을 전쟁의 광풍에 몰아넣은 북방 키메르인들의 南進에 그리스의 식민도시들이 위험에 처해 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시인의 고향 에페소스의 젊은이들은 전란의 위기에도 아랑곳없이 술잔치에 넋이 나가 있는데, 시인은 이들을 향해 절박하게 호소한다. 나태하게 늘어져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 이웃나라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는 외친다.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 바에야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니, 그는 죽더라도 동포에게 우러름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이 절절한 호소의 내용이다.

같은 시대 스파르타의 시인 티르타이오스의 시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0 West):

선두에서 쓰러져 죽음은 아름다우니
용기 있는 사내는 거기서 조국을 위해 싸운다.
자신의 조국과 기름진 농토를 떠나
구걸하는 삶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으리?
친어미와 늙은 아버, 어린 자식과
혼인한 아내와 함께 유랑하느니.
그는 궁핍과 끔찍한 가난에 찌든 꼴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더기가 되리라.
가문의 욕이요, 빛나는 형체를 잃으니,
온갖 불명예와 비참함이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떠도는 사내를 위해서는 배려도
존중함도 없고, 그 후손도 그리하리라.
용기를 내어 이 땅을 위해 싸우고 자식들을 위해

죽자. 목숨을 아끼지 말자.

그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면, 칼리노스와 티르타이오스의 시는 임전(臨戰)을 부추기는 이른바 “전쟁 독려시”(Kampfparänese)이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 전쟁의 노래가 따라붙기 마련이고, 전쟁의 노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논리로 무장하고 있다. 싸움터의 명예로운 죽음은 기리 기억되리라는 것, 살려는 자는 죽고 죽으려는 자는 산다는 것이 그 핵심 논리다.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노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문학사의 맥락에서 보면 그 두 편의 시는 『일리아스』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전쟁 독려시들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다(II. 15. 561 ff.):⁹⁾

친구들이여, 사나이답게 행동하며 가슴 속에 부끄러움을 갖고,
격렬한 전투에서 피차 남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시오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은 죽는 자보다는 사는 자가
더 많을 것이나, 도망치는 자들에게는 명성도 구원도 없을 것이오

발언 내용만을 떼어놓고 보면, 칼리노스와 티르타이오스의 호소는 『일리아스』에 나오는 아이아스의 권고와 큰 차이가 없다. 적을 앞에 두고 도망침은 부끄러움(aidōs)을 모르는 일이니, 죽을 때 죽더라도 사나이답게 용감히 싸워 명성(kleos)을 지키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 속에는 그리스 윤리학의 핵심, 즉 부끄러움을 피하고 죽음에 앞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사나이다운(용기 andreia)이요 명예(timē)라는 주장이 간결하게 담겨 있다. 하지만 표현 형식이 나 촉구 내용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에 깔린 정서에서 우리는 어떤

9) II.(= 『일리아스』) 15. 661ff.의 다음 구절도 함께 참고하라. (네스토르가 아키아인들에게) “친구들이여, 사나이답게 행동하고 마음 속으로 남들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아시오, 각자 자식과 아내와 재산을/ 생각하시오 그리고 아직 살아계시든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든 그대들을 낳아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시오/ 이 자리에 안 계신 그 분들의 이름으로 내 그대들에게/ 간청하노니, 깨끗이 맞서고 몸을 돌려 달아나지 마시오.” 이 글에서 『일리아스』와 『오뒤세이아』의 인용은 천병희 교수의 『일리아스』와 『오뒤세이아』 번역을 따랐지만, 필요에 따라서 표현을 바꿨다.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전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영웅주의가 빛을 잃는다.

『일리아스』의 영웅들에게 전쟁은 야누스와 같은 존재다. 전쟁은 사내들을 무참하게 죽여 하데스로 보내고 남은 생존자들, 즉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참혹한 노예 상태로 끌고 가지만, 이렇듯 죽음이나 죽음보다 더한 비참함을 불러오는 전쟁은 명성과 영광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그러기에 전쟁에는 “kydianeira”(“사내에게 영예를 주는”)가 수식어로 따라붙는다.¹⁰⁾ 영웅은 죽음에 맞서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나이다운을 발휘하며 명성과 영예를 얻는다. 앞서 말했듯이, 싸움터는 영웅이 자신의 영웅다움을 드러내는 자리요 영웅과 범부가 갈리는 심판장이기 때문이다. 『일리아스』의 이런 영웅주의는 물론, 칼리노스와 티르타이오스의 시편들에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지만, 남은 것은 사실 퇴색한 영웅주의이다. 영웅심과 명예심을 부추기는 말들은 남아있지만, 그것들은 그저 생기 잃은 관용구처럼 들린다. 전사(戰士)들은 이미, 맞대결을 펼쳐 자신의 영웅다움을 내보이는 호메로스의 영웅들이 아니라 밀집대형(Hopliten-Phalanx)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뒤엉켜 싸우는 이름 없는 전사들이다(M. Hose 1999: 45). 이들에게는 목숨을 내걸고 지킬 대단한 명성이란 없다. 그들에게 전쟁은 본색을 드러낸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명성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런즉 고향 땅과 아이들과 혼인한 아내를 위해/ 적들과 맞서 싸움은 사내의 명예요(timēen)/ 영광이라(aglaon).” 생존의 터전과 처자식의 목숨 보존 — 이것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 할 전쟁의 명분이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니,.../ 번번이 싸움과 창들의 핏음을 피한다 해도/ 죽음의 운명은 집 안에서 다가온다.” 죽음의 불가피성 — 이것은 전장(戰場)으로 사람을 내몰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속 빈 위안일 따름이다. 물론 『일리아스』의 사르페돈도 글라우콘에게 비슷한 말을 한다(II. 12. 322ff): “친구여, 만일 우리가 이 싸움을 피함으로써/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을 운명이라면야/ 나 자신도 선두 대열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또 사내에게 영예를 주는

10) 다음의 구절들을 참고하라. II. 4, 225; 12, 325; 24, 391.

싸움터로 그대를 내몰지도 않을 것이오/ 하나 인간으로서는 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무수한 죽음의 운명이 여전히 우리는 위협하고 있으니 자, 나갑시다...” 사르페돈의 권고는 이른바 *noblesse oblige*의 본보기이고, 칼리노스나 티르타이오스의 권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해도 두 엘레게이아 시인의 참전 호소에는 사르페돈의 다짐에 담긴 위엄과 박력이 빠져있다.

칼리노스와 티르타이오스의 시들에 남아있는 영웅주의적 색채는 아르킬로코스(Archilochos)의 시들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파로스(Paros)에서 태어나 용병으로 전쟁터를 떠돈 아르킬로코스에게 “사나이에게 영예를 주는 전쟁”에 대한 어떤 환상적 기대도 없다. 칼리노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는 “주인 아레스의 시종이며 뮤즈들의 사랑스런 선물을 익히 안다.”(1 West) 즉 그는 전사이자 가인이다. 하지만 전쟁터의 삶에서 그는 어떤 영웅적인 면모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말끔한 차림새로 전장을 확보하는 “높은 자리의 장수”를 높이 치지 않는다. 차라리 굵은 다리를 세우고 땅에 굳게 서 있는 자에게 그는 더 큰 신뢰를 보낸다(114 West). 시인은 “창을 들고 반죽된 보리빵을 얻고, 창을 들고 이스마로스의 포도주를 얻는다. 창에 기대어 술을 마신다.”(2 West) 전쟁은 아르킬로코스에게 빵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생존의 터전이다. 그는 술병을 들고 배의 갑판 위를 거닐고 붉은 포도주를 술지게미까지 긁어 마시면서 술에 취해 망을 본다. 『일리아스』의 영웅들의 생김새나 태도와 비교해 보면, 전사 아르킬로코스의 모습은 체념적이며 심지어 “퇴폐적”이기까지 해 보이지만 사실적이고 생생하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 전장을 전전하다 전장에서 전사한 용병 시인 아르킬로코스의 전쟁 체험이다.

그런 전쟁터는 결코 사나이다움을 내보여 명성을 얻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 (5 West):

사이온 사내가 방패를 들고 우쭐대니, 숲가에서
마지못해 내가 버렸던 흙 없는 무기라.
나 자신은 죽음을 피해 도망쳤으니, 그 방패야

그대로 두자. 더 나쁘지 않은 것을 또 얻게 되리.

이 구절은 전쟁을 다룬 후대의 여러 시에 하나의 전형적인 토포스를 제공했다.¹¹⁾ 아르킬로코스는 영웅의 모랄을 비웃고 그것에 등을 돌린다. 살아남기 위해 방패를 버리고 도망친다는 것은 『일리아스』의 영웅들에겐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무기는 그들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요, 죽음을 당한 동료 전사의 무기를 적에게 빼앗기는 것은 그에게 두 번 죽음을 안겨주는 것이기에 그들은 전사자의 무기를 놓고 죽기 살기로 싸운다.¹²⁾ 『일리아스』의 영웅들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기이지만, 싸움에 이골이 난 아르킬로코스에게 그까짓 무기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명예를 지키는 것 또한 그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전쟁터의 죽음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개죽음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133 West). 그러기에 명예를 보존하려 방패를 두고 죽기 살기의 싸움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방패야 또 얻으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위해 죽음을 무릅쓴단 말인가?

아르킬로코스가 전쟁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칼리노스나 티르타이오스의 그것과 다르다. 이 차이는 작게는 그들이 당면한 전쟁의 성격 차이에서도 연유하겠지만, 전쟁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다른 데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통된 인식이 하나있다. 이제 전쟁은 영웅다움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이상적인 모습을 잃고 그 대신 인간이 마주선 참혹한 한계상황으로서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전쟁을 주제로 하는 초기 그리스의 서정시들은 그런 현실 전쟁에 대한 시인들의 엇갈린 반응을 보여준다.

3. 불행과 늙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가사성(可死性)을 그리스인들은 불멸

11) Anakreon, 51 Diehl과 Horatius, Oden 2, 7, 10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12) Il. 17, 12ff.를 참고하라.

의 신들과 인간을 갈라놓는 첫 번째 조건으로 받아들였다.¹³⁾ 전쟁은 산 자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조건과 맞대면하는 자리이며, 전쟁터 곳곳에는 죽음의 여신 검은 케르(Ker)가 인간들을 따라다닌다. 하지만 꼭 전쟁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처소에서 인간은 목숨을 위협하는 온갖 형태의 자연력 앞에 별거벗겨진 채 내던져져 있다. 칼리노스의 말대로 “번번이 싸움과 창들의 굉음을 피한다 해도/ 죽음의 운명은 집 안에서 다가온다.” 인생에 중지부를 찍는 자연의 파괴적인 힘은 밖에서부터 갑자기 들이닥치기도 하고 몸 안에서부터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외부의 자연력과 내부의 자연력, 이 두 가지 신적인 힘 앞에 인간은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다. 아르킬로코스의 시 가운데는 외부 자연의 파괴력이 몰고 온 갑작스런 죽음을 노래한 시가 있다 (13 West):

깊은 신음 속에 애통함을 나무라며 잔치자리로 발을 돌릴
 시민은 없으리라. 이 나라도 그리하진 못하리라. 페리클레스여!
 그이들을 포효하는 바다의 거센 물결이
 쓸어갔으니, 우리의 온 가슴은 슬픔으로
 메워지노라. 허나, 친구여, 신들은 이 다스릴 수 없는 불행에 맞서
 굳센 인내의 힘을 치료약으로 마련해 주었노라.
 다른 때는 다른 이가 이 일을 당하리라. 이제 일이 우리에게
 닥쳤고, 우리는 그 피 맺힌 상처에 신음하노니,
 이 일은 다시 다른 이들에게 옮겨가리라, 그러니, 속히
 힘을 내라, 여인네의 상한 마음을 떨쳐 버리라.

이 시구들은 아르킬로코스의 고향 도시 파로스의 페리클레스에게 바친 비가(悲歌)의 일부이다. 시인은 배의 침몰로 숨진 동료 시민들을 애도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그의 매부도 끼어 있었다고 한다. 배 난파를 묘사한 구절은 소

13) Od.(『오뒤세이아』) 3, 236ff를 참고하라. Simonides의 다음 시구는 그런 인식을 담은 절창이다. “하찮은 것이 사람의/ 힘ियो, 근심은 끝이 없으니, 짧은 인생 동안 닥치는 어려움은 첩첩산중/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어차피 다가온다/ 행복한 자도, 불행한 자도 똑같은 죽음의 운명을/ 타고 났으니.”(354 Page).

실되었고, 죽은 사람이 몇이고 그들이 어떻게 죽었으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항해에 익숙한 사람들로서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짐작되며, 그렇기에 난파 사건은 더욱 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잔치 자리로 향하는 발길을 마다하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길 이유가 없다. 온 가슴은 슬픔으로 메워진다. 아르킬로코스는 이런 재난과 불행을 직시하면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을 이야기한다. 불의의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지금은 이 일이 그네들에게 닥쳤으나, 또 다른 때는 다른 이가 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피 맺힌 상처에 신음하듯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 고통을 넘겨받을 것이다. 불행은 사람은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시인은 페리클레스를 위로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자위의 말이자 모든 인간에게 주는 위로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것이다. 시인에 따르면, 이미 몰아닥친 불행에 맞서 살아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힘을 내어 참는 것(tlênai)뿐이다.¹⁴⁾ 이것이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불행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이다. 그러므로 살아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상한 마음을 떨쳐 버리고 주인 포세이돈이 내어준 슬픔의 선물을 땅에 묻는 일뿐이다.¹⁵⁾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요, 통곡해도 죽은 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흥을 내어 노래를 부른다고 더 나빠질 것은 없기 때문이다.¹⁶⁾ 이런 위로 속에서는 전쟁터를 전전하며 삶의 무상함을 체득한 시인의 달관의 지혜가 엿보인다.

불행을 앞세운 죽음은 도적같이 찾아와 사람을 낚아채 하데스로 보낸다. 숫한 죽음이 전쟁이나 재난의 모습을 띠고 갑작스레 찾아오는데, 설사 그런 불의의 죽음을 피한다고 해도 인간의 삶은 크게 더 나아질 것이 없다. 빠른 걸음으로나 느린 걸음으로나 죽음은 어차피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기 때문이

14) 다음 구절들을 참고하라. Il. 24, 48, 522 ff.; Od. 3, 209; 4, 543.

15) 12 West: “주인 포세이돈이 내어준 슬픔의 선물을 땅에 묻자.”

16) 11 West: “통곡해도 되돌리지 못하리. 흥을 내어 노랴/ 불려도 더 나빠지지는 않으리.”

다. “한 손에 가시를 들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벨랑콜리의
시인 밈네르모스(Mimnermos)의 탄식은 우탁(禹倬)의 그런 탄식과 다르지 않
다(1 West):

사는 것이 무엇이며, 잔칫상이 무엇인가? 황금빛
[아프로디테가 떠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오니. 은밀한 사랑과
달콤한 선물과 침상, 이것들이 더 이상 내게 없다면.
이 여럿은 청춘의 꽃잎처럼 못 사내와 아낙을
유혹하도다. 허나 고통을 이끌고 늙음이 찾아오면,
사내는 부끄럽고 추악한 몸이 되니
시름은 가슴 언저리에 머물러 그를 식이고
태양의 눈빛을 보아도 기운을 얻지 못하도다.
아이들에겐 미움거리, 아낙들에겐 천덕꾸러기
신이 마련한 것은 이런 고달픈 늙음이라.

가버린 청춘을 노래하는 이 시는 흔히, 같은 정조를 담은 사포의 시나 아나
크레온의 시와 비교되곤 한다.¹⁷⁾ 하지만 밈네르모스가 지은 엘레게이아의 분
위기가 훨씬 썰렁하다. “사는 것이 무엇이며, 잔칫상이 무엇인가?”라는 도발
적인 물음 뒤에는 늙은 시인의 회한과 설움이 배어 있다. 필시 전쟁과 재난을
피해 살아남았을 시인에게 오래 삶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 “황금빛 아프로디
테”가 떠나버린 그의 노년은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다. 젊은 사내와 아낙을
유혹하던 “청춘의 꽃잎”(hēbēs anthea) 같던 “은밀한 사랑”도, “달콤한 선물과
침상”도 이제 모두 옛일이고, 남은 것은 그저 늙음(gēras)이요 어깨를 짓누르
는 고달픈뿐이다. 노년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이미 서사시의 시인들도 거듭 이
야기했지만, 사랑의 즐거움을 인생의 가장 큰 낙(樂)으로 삼았던 “쾌락주의
자” 밈네르모스에게는 그 괴로움의 정도가 훨씬 더하다. 이미 찬바람에 붉어

17) Snell 1955: 73을 참고하라.

지기 시작한 잎사귀는 햇살을 받아도 지난 여름의 초록빛을 되찾을 수 없듯이, 고통을 이끌고 찾아온 늙음은 젊음의 소생을 허락하지 않는다. “가을 바람에 늙어가는 거미처럼” 물결은 흥측해지고 쓸모가 없어지니 남는 것은 시름 뿐, 태양의 눈빛을 보아도 기운을 되찾지 못한다. 그래서 늙은이는 아이들에겐 미움거리, 아낙들에겐 천더기일 뿐이다. 인간에게 청춘의 꽃잎을 주었던 바로 그 신적인 자연이 이제 인간에게 이런 서럽고 괴로운 늙음을 가져다준 것이다.

신적인 자연의 힘이 낳는 인생의 순환과 무상함을 밈네르모스는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한다(2 West):

우리는 나뭇잎 같으니, 잎은 꽃피는 봄철
태양의 눈빛 아래 몸을 키워 자라도다.
그처럼 우린 짧은 시간 청춘의 꽃을 즐기나,
신들이 보낼 행(幸)도 악(惡)도 알지 못하도다.
검은 캐르 여신들이 다가오니,
하나는 고달픈 늙음을, 하나는 죽음을 인생의
끝에 두도다. 젊음의 열매는 순식간에
쇠하니, 태양이 땅 위에 퍼져 있을 때뿐이라.
허나 이 계절의 끝이 곁을 스쳐 지나가면,
어찌 죽은 것이 산 것보다 나으랴..

이 시편은 인간세대의 변천을 떨어지는 나뭇잎에 비유한 『일리아스』의 한 구절을 변용한 것이다. “잎들도 어떤 것은 바람에 날리어 땅 위에 흩어지나, 봄이 와서/ 숲속에 새싹이 돌아나면 또 다른 잎들이 자라나듯, 인간들의 세대도/ 그와 같아서 어떤 것은 자라나고 어떤 것은 시들어지는 법이다.”(II. 6.145-149.)¹⁸⁾ 하지만 떨어지는 잎사귀와 꽃잎은 동서고금을 가릴 것 없이 무상한 인생의 단골 비유였기에, 그 출처를 따짐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것이다. 지나간 봄철의 꽃잎처럼 사라진 젊음을 회고하는 밈네르모스의 시는 구

18) II. 21, 464ff.를 함께 참고하라.

약성서 “시편”의 한 구절¹⁹⁾을 떠오르게도 하고, 월명사의 “제망매가”를 생각나게도 한다. 떨어지는 꽃잎과 바람에 날려 땅 위를 나뉘구는 나뭇잎들처럼, 모든 충실함과 다채로움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운명을 타고난 인간 존재의 무상성을 충실히 보여주는 것은 많지 않다. 밈네르모스는 인간의 유한성 앞에서 아르킬로코스 만큼 담대함을 내보이지 못한다. 아르킬로코스의 시편들이 인생에 대한 모든 환상과 기대를 떨쳐버린 각성된 정신의 발로라면, 밈네르모스의 시편들은 그리스적 센티멘탈리즘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4. 인간의 무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면서 이성적인 존재이다. 고전기 그리스인들의 눈으로 보면, 사람은 죽는다는 점에서는 신들과 다르지만, 이성 능력을 타고난다는 점에서는 신과 비슷하다. 특히, 인간의 이성 능력을 신뢰했던 고전기 철학자들은 이성 능력의 활용인 이론적 활동(theoria)을 통해 인간이 신적인 존재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신적인 존재인 이성이 육체적인 삶의 구속을 넘어서 영원불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리스의 시인들은 이성에 대한 그런 낙관주의적 신념에 대해 거리를 둔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에 관한 한 그들은 오히려 회의주의자에 가깝다. 그들이 보기에 사람은 자기 삶의 한계가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그의 운명의 씨줄과 날줄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하마르티아(hamartia)를 드라마화한 고전기 그리스 비극에서 더 없이 분명하게 표현되지만, 그에 대한 의식은 이미 초기 그리스 서정시 속에도 뚜렷하게 선취되어 있다. 아모르고스(Amogros)의 세모니데스(Semonides)의 시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I West):

19) 시편 103, 15ff.: “인생에게는, 그 날이 풀과도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다.”

아이야, 있는 것 모두는 그 끝이 우레의 신 제우스의
손에 놓였으니, 그는 자기가 바라는 곳에 끝을 둔다.
선견(先見)은 사람들의 몫이 아니니, 그들은 하루하루
잠승처럼 산다, 신이 매사(每事)를 어찌 끝낼 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선견은 “nous”를 옮긴 말이다. “누스”는 여러 가지 뜻을 갖지만,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간에 내재한 초월적이고 신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그것은 사려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dianoia”와 대비되어 전체를 한꺼번에 파악하는 통관(通觀) 능력을 가리키기도 한다. 인간은 누스를 통해 자기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현실 전체를 파악한다. 인간이 현재의 시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것 또한 누스의 능력 덕분이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Parmenides)는 누스를 통해서 보면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보인다고 말한다.²⁰⁾ 또한 엠페도클레스(Empedokles)는 우주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힘, 사랑과 미움을 누스를 통해 보라고 권고한다.²¹⁾ 파르메니데스나 엠페도클레스의 교훈시(Lehrgedichte)에서 보면, 누스는 사-공간의 질서 속에서 인간을 둘러싼 조건 전체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자 변화하는 인간 세계 너머의 불변하는 질서 전체를 파악하는 정신 능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전기 그리스 철학은 이런 누스 개념을 받아들여 인간을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누스 덕분에 불변하는 질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살아있는 다른 것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하지만 인간의 누스에 대한 시인들의 평가는 그와 판이하게 다르다. 일찍이 『일리아스』의 시인은 인간 누스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미망에 사로잡혀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파트로클로스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II. 16, 687): “하나 제우스의 생각(nous)은 언제나 인간들의 생각보다 더 강력한 법이어서,/ 그는 용감한 자도 달아나게 하여 손쉽게 승리를/ 빼앗아 버리는가 하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싸우게 하거늘,/ 이 때도 그는 파트로클로스의 가슴에 용기를 불어넣었던 것이다.” 세모니데스의 평가는 더욱 가혹하다. 그는 “선견(nous)은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20) Diels-Kranz 28 B 4.

21) Diels-Kranz 31 B 17, 21.

고 잘라 말한다. 인간에게 누스가 없다면, 그는 사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짐승들이 앞일을 내다보지 못한 채 하루살이 삶을 살듯이, 인간 역시 하루살이 존재다.²²⁾ 헤라클레이토스(Herakelitos)는 “모든 기어 다니는 짐승들은 (신의) 채찍에 쫓겨 먹이를 찾아간다.”²³⁾고 말하지만, 사실 누스가 없는 인간의 삶은 그런 짐승의 삶과 다를 바 없다. 그는 “신이 매사를 어찌 끝낼 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짐승처럼 산다.”

이런 인간에게 내일의 기약은 속절없는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세모니테스는 이렇게 노래한다.

희망과 믿음은 모든 자들을 부풀리니, 그들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에 붙잡혀 있도다.
어떤 자들은 내일이 오길, 어떤 자들은 해가 바뀌길
바란다. 죽을 자들 가운데, 뜻을 세워
새해 재물과 행운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자 어디 있으랴.

허나, 목적지에 이르기 前 원치 않던 늙음이 먼저
다가와 그를 낚아챈다. 어떤 이들은 끔찍한 질병들이
숨을 꿰고, 또 어떤 이들은 軍神 아레스의 먹이가 되니
검은 하데스가 그들을 땅 아래로 내려 보낸다.
또 다른 이들은 바다의 폭풍에 황망히 쫓기어
검푸른 바다의 수많은 풍랑 속에 목숨을 잃으니,
그들은 살 힘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라.
또 어떤 자들은 불운하여 올가미를 손에 쥐고
스스로 태양의 빛을 뒤로 한다.

이렇듯 악을 떠난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사람들에게겐
허다한 죽음과 예측할 길 없는 불행과
재난이 가까이 있도다..

22) 인간 존재에 대한 이런 관념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Fränkel 1955, 23ff.를 참고하라.

23) Diels-Kranz 22 B 11.

“희망”(elpis) 속에서 인간은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 미래의 삶을 선택한다. 희망하는 자는 물론 희망의 성취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오리라 믿는다. 새해 아침이면 누구나 행운과 재물을 염원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처럼 부질없는 것은 없다.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실현될 때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올지, 아니면 그것이 다른 어떤 불행을 낳을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견 또는 누스를 가질 수 없는 인간에게는 미래를 희망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모두 어리석은 일이다.²⁴⁾ 세모니데스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경계한다. 인간은 자신의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도모하기 일췌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미래를 위해 무슨 뜻을 세울 수 있으랴? 그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자기의 뜻을 세운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원치 않던 늪음이 그를 낚아채고 끔찍한 질병에 목숨이 끊기고, 전신(戰神) 아레스의 먹이가 된다. 바다의 폭풍에 황망히 쫓겨서 검푸른 풍랑에 목숨을 잃고 또 어떤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세모니데스는 “허다한 죽음과 예측할 길 없는 불행과 재난”의 목록을 들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에 가슴을 부풀리는 인간의 어리석은 희망을 비웃는다.

5. 현재를 사는 삶의 지혜

인간의 삶은 온갖 재난과 불행에 내맡겨져 있고, 그런 삶은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지만, 인간은 정작 자신의 인생행로가 어디로 이어지고 언제 어디서 끝날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은 그리스 서정시인들의 의식 속에 각인된 인간 조건(*conditio humana*)이며, 그 조건 앞에서 그들은 인간의 무기력 또는 대책 없음(*amechaniē*)을 토로한다. 하지만 인간의 무지에 대한 자각이 소크라테스

24) 7세기 시인 Simonides는 이렇게 노래한다(355 Page): “너 사람아, 내일 무슨 일이 올지 말하지 말라/ 행복한 사람을 보면서 말하지 말라, 그가 얼마나 오래 살지/ 날개 넓은 날파리의 날갯짓도 것처럼/ 빠르지 않으니.”

에게 “인간의 지혜”(anthrōpinē sophia)를 가져다주었듯,²⁵⁾ 인간 삶의 제약성과 무력에 대한 의식은 그리스 서정시인들에게 삶을 사는 지혜를 낳는다. 하지만 이들이 제한된 인간의 삶에서 구하는 것은 호메로스 서사시의 영웅들이 구한 것과는 다르고, 내세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둔 종교적인 바람과도 다르다. 호메로스의 영웅들 역시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다. 걱정 근심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에겐 “불사에 대한 유일한 현실적인 희망은 자기의 명성이 노래 속에 살아남는 것이었다.”(Kitto 1984: 89) 그들이 유한한 삶의 연장보다는 영원한 명성을 얻는 데 삶의 전부를 걸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영웅들에겐 명예에 대한 열망이 있으며, 이 열망은 그들에게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는 무한한 미래의 지평을 열어놓는다. 한편, 오르페우스교도들은 호메로스의 영웅들과 다른 쪽에서 영원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²⁶⁾ 그들 역시 현세의 삶에 어떤 희망도 두지 않는다. 그들의 희망은 우리 안에 신적인 것, 영혼이 육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들에겐 죽음은 오히려 영혼의 해방이다. 이 해방이 또 다른 육체를 입어 태어나 현생의 삶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금욕적이고 정화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에겐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초기 그리스 서정시인들의 경우에는 어떤가?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칼리노스나 티르타이오스는 사람들에게 명성에 대한 열망을 부추긴다. 그들은 명성과 영광을 죽음을 초월하는 가치로 추켜세운다는 점에서 호메로스적이다. 갑작스런 불행에 맞서 아르킬로코스는 굳센 인내를 가지고 “참으라”고 권고하는데, 이것 또한 호메로스적이다.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온 프리아모스에게 아킬레우스가 했던 말을 상기해 보자(II. 24, 522-526): “... 자, 아무튼 의자에 앉으시오 아무리 괴롭더라도/ 우리의 슬픔은 마음속에 누워있도록 내버려둬시다/ 싸늘한 통곡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신들은 비참한 인간들의 운명을 정해 놓았지요” 참는 것, 이것은 호메로스의 영웅들에게나 서정시 시인들에게나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대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어

25) Platon, Apologia 20d; 23a. 조대호 2003: 321ff.를 참고하라.

26) 오르페우스교의 인간관과 내세관에 대해서는 조대호 2004: 109를 참고하라.

떨 수 없는 수용의 방식이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 서정시인들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현재의식, “여기 지금”(hic et nunc)과 거기서 이끌려나오는 권고이다(29 Diehl = Simonides 8 West):

키오스 사람의 더 없이 옳은 말 한마디.
 “나뭇잎들의 피고 짐은 인간들의 세대와 같구나.”
 몇 사람이나 이를 두 귀에 담아 가슴 속에
 간직했는가? 사람들에게겐 저마다 희망이 있으니,
 희망은 젊은이들의 가슴에서 자라난다.
 사람은 사랑스런 청춘의 꽃을 간직한 동안,
 뜻을 가벼이 하여 이루지 못할 일들에 생각을 두니,
 늙어갈 일에도 죽을 일에도 예상을 두지 않고,
 건강이 있는 동안 질병도 생각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들, 이들의 생각은 거기에 있으니, 그들은
 죽을 자들에게 젊음과 삶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보지
 못하도다. 그런즉 너는 이를 깨달아 삶의 마지막까지
 삶을 건디며 좋은 일들을 즐기라.

이 시편은 바로 위에서 읊긴 세모니데스의 시와 분위기가 같아서 전통적으로 같은 시인의 작품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가 하면 문체를 이유로 들어 그 시를 후대 시인 케오스(Keos)의 시모니데스(Simonides) 시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누가 그 시의 지은이이건, 그 시편은 밈네르모스나 세모니데스의 시와 함께 “원시기 그리스인의 감성에 대한 적절한 표현”(Easterling and Knox 1989: 116)이라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시인은 — 밈네르모스가 그렇듯이 — 호메로스의 비유를 끌어들여 청춘의 젊음을 일깨우면서 그로부터 삶의 지혜를 이끌어낸다. 그는 인생이 한 계절의 초록 뒤에 빛을 잃고 속절없이 떨어지는 나뭇잎과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질타한다. 이들은 지금 간직한 청춘의 꽃이 오래지 않아 시들고, 늙어 죽을 일을 생각지 않은 채 덧없는 희망을 좇아 인생을 탕진한다. 이들은 죽을 운명의 인간들에게 “젊음과 삶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훗날 로마의 시

인 호라티우스(Horatius)는 류코노에에게 준 시(Ode 1, 11)에서 “짧은 인생에 맞춰 긴 희망을 잘라 내거라.”(spatio brevi spem longam reseces)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이 날을 잡아라. 뒷날은 좀처럼 믿지 말거라.”(carpe diem quam minimum credula postero)고 조언한다. 인생의 짧음을 깨닫고 “삶의 마지막까지 삶을 견디며 좋은 일들을 즐기라.”는 시인의 권고는 호라티우스의 충고와 다르지 않다.

뎀네르모스나 세모니데스의 서정시들이 인생의 제한성에 대한 의식에서부터 쾌락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거기서 삶의 길을 찾는다면, 아르킬로코스의 경우는 방향이 다르다. 유한하고 덧없는 삶에 대한 그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시편이 있다(128 West):

마음이여, 어찌할 수 없는 걱정요 동하는 마음이여!
 일어나라, 악을 피하는 무리 앞에서 자신을 지켜라. 그들에 맞서
 가슴을 펴고 다가오는 적들 가까이 굳게 서라,
 흔들림 없이. 이긴 뒤 사람들 앞에서 뽐내지 말며,
 진 다음 집 안에 나자빠져 슬퍼하지 말라.
 기쁜 일은 기뻐하고 나쁜 일엔 화를 내되
 지나치지 말라. 사람살이의 모양새가 어떤 것인지를 알라.

이것은 아르킬로코스가 “튀모스”(thymos)에게 주는 권고이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는 인간 영혼의 기관이 보통 튀모스, 프렌(phrēn 또는 phrēnes), 누스(nous)로 나뉘는데(Fränkell 1993: 86f.; Snell 1955: 19f.), 이 가운데 튀모스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을 비롯한 온갖 정념과 걱정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아르킬로코스는 다른 시편에서, 튀모스, 즉 사람들의 마음은 그날그날의 삶의 조건에 따라 수시로 달라진다고 말한다(131 West).²⁷⁾ 그에 따르면 사람의 의식은 그날그날 삶의 메아리이다. 사람의 마음은, 망망한 바다에서 세찬 파도에 흔들리는 조각배처럼, 삶의 격랑 속에서 대책을 찾지 못해 동요한

27) Od. 18, 134f.를 함께 참고하라.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로는 H. Fränkell 1993: 149ff.를 보라.

다. 행운의 날에는 기뻐 날뛰다가 불행의 날이 오면 힘을 잃고 나자빠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아르킬로코스는 이렇게 동요하는 마음에 “굳게 서라”고 당부한다.²⁸⁾ 승리와 패배에 마음이 매이지 말고 담담하라고 그는 권고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라는 것이 목석같은 삶은 아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기쁜 일에 기뻐하고 나쁜 일엔 화를 내되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일찍이 델피 신전에 새겨진 아폴론의 가르침에서 기원해서 고전기 그리스의 중용(中庸)의 윤리학 속에서 체계적으로 발전된 “지나치지 말라”(mēden agan)는 격률은 아르킬로코스도 내세우는 인간 삶의 준칙이다. 승리와 패배, 행운과 불행, 기쁜 일과 나쁜 일의 끊임 없는 반복, 이런 반복 속에 인간 삶의 근본 형태, 즉 “rhythmos”가 놓여있다.²⁹⁾ 그런 뜻에서 시인은 “사람살이의 모양새가 어떤 것인지 알라.”고 권고한다. 그런 앎이야말로 바로 인생의 흥망성쇠를 견딜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Snell 1955, 67; Fränkel 1993: 160). 인간조건에 대한 체험과 의식에서 길어낸 밈네르모스나 세모니데스의 지혜가 에피쿠로스적인 것이라면, 동일한 체험과 의식에서 얻어낸 아르킬로코스의 지혜는 스토아 쪽에 가깝다고 말해도 크게 잘못된 평가는 아닐 것이다.

6. 맺음말

인간의 삶과 앎의 유한성에 대한 의식은 그리스 정신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의식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리스 서사시, 서정시, 비극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소개한 몇몇의 시편들 속에서 우리는

28) 이 독백은 보통 Od. 20, 18ff.와 비교된다. “참아라, 마음이어,(tetlathi dē, kradie) 그대는 전에 그 힘을 제어할 수 없는 퀴클롭스가 나의 강력한 전우들을 먹어치웠을 때, 이보다 더 험한 꼴도 참지 않았던가/ 그때도 이미 죽음을 각오한 그대를/ 제락이 동굴 밖으로 끌어낼 때까지, 그대는 참고 견디지 않았던가”

29) Schadewaldt(1989: 124f.)의 지적대로 여기서 말하는 “rhythmos”는 율동이나 흐름(Fließen)이 아니라 어떤 것의 고정된 형태(die feste Form von etwas)를 뜻한다. “rhythmos”의 그런 용법에 대해서는 예컨대 Aristoteles, *Metaphysica* I 4, 985b 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쟁과 죽음, 불행과 늙음, 삶의 무상함, 자신이 운명에 대한 무지 같은 인간이 처한 한계 조건에 대한 기원전 7세기 그리스 서정시인들의 정서적 감응과 의식적 반응을 만난다.

이제 시인은 지나간 시대의 사건을 회고적으로 서술하는 제3의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에 대한 자신의 체험과 반응을 전달하는 개인적 주체로서 등장한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 서정시의 주체, 즉 “여기 지금”의 “나”는, 프랭켈(Fränkell 1993: 169와 Anm. 50)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사적인(privat)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전형적인(repräsentativ)인 존재다. 그런 점에서 시인은 “여기 지금”의 상황을 두고 발언하지만, 이 발언은 지금 여기의 현실을 넘어선 인간 삶 전체를 겨냥한 보편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런 발언에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 그런 의식에서 싹튼 삶의 방향에 대한 감각이 담겨 있다. “amechanie” — 초기 그리스 서정시인들이 보여주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의식은 이 한마디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그가 놓인 삶의 환경 속에서 무기력하다. 하지만 이런 처지에 대응하는 자세는 여러 가지 방향을 취한다. 칼리노스와 티르타이오스의 시들에는 아직 호메로스 영웅주의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이제 불멸의 명예에서 현실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길을 찾는 영웅주의는 그 타당성을 의심받는다. 불멸의 삶이 아니라 제한된 “여기 지금”의 삶을 지향하는 현실적 정신 속에서 초기 그리스 서정시인들의 삶의 감각이 발휘되며, 이 정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취한다. 한편에는 사랑 속에서 현재를 즐기려는 밌네르모스와 세모니데스의 쾌락주의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인간 현실의 부침과 변화의 질서를 알고 현재에 맞서는 아르킬로코스의 강인한 현실주의가 있다. 이 두 가지 삶의 방향이, 인간이 현실 속에서 무기력감을 느낄 때마다 취할 수 있는 두 개의 전형적인 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인용문헌

I. 그리스 원전과 현대어 번역

- 천병희 (옮김) 1996, 호메로스 『일리아스』,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6.
_____ 1996, 호메로스 『오딧세이아』,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6.
E. Buchholz (Hrsg.), *Anthologie aus den Lyrikern der Griechen, 1. Bd. (Elegiker und Iambographen)*, Leipzig, ⁵1900.
H. Diels-W. Kranz (Hrsg.),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Zürich-Hildesheim, ⁶1964.
E. Diehl (Hrsg.), *Anthologia Lyrica Graeca I*, Leipzig, ²1936.
_____, *Anthologia Lyrica Graeca II*, Leipzig, ³1949-52.
H. Färber (Hrsg.), *Horaz. Sämtliche Werke. Lateinisch und Deutsch*, München, ¹¹1993.
R. Kassel (rec.), *Aristotelis De Arte Poetica Liber (OCT)*, Oxford, 1965.
D.L. Page (ed.), *Lyrica Graeca selecta*, Oxford, 1968.
M.L. West (ed.), *Iambi et Elegi Graeci. Ante Alexandrum Cantati*, Vol I, Oxford, 1971.
_____, *Iambi et Elegi Graeci. Ante Alexandrum Cantati*, Vol II, Oxford, 1972.
_____, *Greek Lyric Poetry*, Oxford, 1993.

II. 인용된 이차문헌

- 조대호, 「소크라테스 윤리의 그리스적 전통에 대한 연구」, 『철학논총』, 제33집 제3권, 2003, 317-335.
_____, 「플라톤: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이다」, 『철학, 죽음을 말하다』, 정동호(편), 서울: 산해, 2004, 97-123.
C.M. Bowra, *Landmarks in Greek Literature*, Cleveland and New York, 1966.
P.E. Easterling and B.M.W. Knox (edd.), *The Cambridge History of Classical Literature. Vol. I. Part I. Early Greek Poetry*, Cambridge, 1989.
H. Fränkel, ΕΦΗΜΕΡΟΣ als Kennwort für die menschliche Natur, in: ders., *Wege und Formen frühgriechischen Denkens*, München, ²1955, 23-39.
_____, *Dichtung und Philosophie des frühen Griechentums*, München, 1993.
M. Hose, *Kleine griechische Literaturgeschichte. Von Homer bis zum Ende der Antike*,

München, 1999.

H.D.F. Kitto, 『그리스 문화사』, 김진경 역, 서울: 탐구당, 1984.

W. Schadewaldt, *Die frühgriechische Lyrik*, Frankfurt a. M., 1989.

B. Snell, *Die Entdeckung des Geistes*, Hamburg, ³1955.

_____, *Der Weg zum Denken und zur Wahrheit. Studien zur frühgriechischen Sprache, Hypomnemata*, Hf. 57, Göttingen, 1978.

M.L. West, *Studies in Greek Elegy and Iambus*, Berlin-New York, 1974.

[Zusammenfassung]

Das Bewußtsein der *conditio humana* und der Realitätssinn in der frühgriechischen Lyrik

Dae-Ho Cho

(Yonsei University)

Elegie und Iambos gehören zu den ältesten Genre der griechischen Lyrik. Erst in diesen Gedichten aus dem 7. Jh. v. Chr. beginnt der Dichter als persönliches Subjekt seine eigenen Erfahrungen auszusprechen, während er im Epos objektiv und leidenschaftslos hinter seinem Stoff zurückblieb. So behauptet man, dass in den Gedichten der beiden Genre “das Erwachen der Persönlichkeit”(B. Snell) erfolge. Doch dieser persönliche Charakter der frühgriechischen Dichtung darf nicht im Sinne der Subjektivität verstanden werden, wie man sie in der modernen Lyrik findet. Dem subjektiven Gefühl, das in den uns tradierten Fragmenten aus der frühgriechischen Dichtung zum Ausdruck kommt, kann man nämlich ein gemeinsames Pathos ablesen, das die Elegiker und Iambographen in der Zeit des politischen Umwandels angesichts der *conditio humana* empfunden hatten, das Pathos nämlich, das sich wohl unter dem Begriff *amechaniē* am besten

zusammenfassen lässt. In solchen Grenzsituationen, wie Krieg, Unglück, Altern, sprechen sich die Dichter völlig hilflos aus und beklagen sich über die menschliche Unwissenheit über das erhängte Schicksal. Bezeichnend für ihre Begegnung mit der Hilflosigkeit des menschlichen Daseins ist jedoch der Realitätssinn, den sie aus ihren Erfahrungen der *conditio humana* bzw. *amechaniē* gewonnen haben: Sie wollen sich weder durch einen heroischen Gedanken über den Nachruhm noch durch einen religiösen Glauben an das Jenseits täuschen lassen. Sie wollen vielmehr *hic et nunc* einen Weg finden, sich mit der *amechaniē* abzufinden. Und dabei werden zwei verschiedene Lebenswege eingeschlagen, der Weg des erotischen Hedonismus (Mimnermos und Semonides) und der des "sardonischen" Realismus (Archilochos). Damit weisen uns die frühgriechische Lyrik auf zwei typische Lebensrichtungen hin, die sich später in der griechischen Ethik einbürgern sollen.

접 수 일 : 2004년 4월 23일

심사기간 : 2004년 5월 1일~20일

재 심 사 : 2004년 5월 30일

게재결정 : 2004년 6월 5일(편집위원회)